

본문에서 발견하기

-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간했다고 말합니까?

- 바울이 받은 "은혜의 경륜"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하셨습니까?

- 과거(다른 세대)에 이 비밀은 어떻게 다루어졌습니까?

- 이제 이 비밀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이방인이 누리게 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 이방인이 이 세 가지를 누리게 된 근거(수단)는 무엇입니까?

-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 이 비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적용하기

- 내가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거나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내 주변에서 복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늦으신다고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난 주 말씀묵상 (에베소서 2:19-22)

-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외인이며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공동체 밖에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친밀한 가족의 관계로 변화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이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그 중심에는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복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들이 증거한 말씀, 곧 성경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 따라서 교회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모퉁이돌 되신 그리스도는 건물 전체의 기준과 방향을 결정하시며, 모든 부분을 하나로 연결하고 바로 세우는 중심이 되십니다.
- 이러한 기초 위에서 성도들은 각각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존재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의 돌과 같아서 서로 맞물리고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한 건물이 세워지듯이, 교회 역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단순한 조직적 결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있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데 있습니다.
-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단순한 건물이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섬김이든,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한 부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나는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 결국 나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 가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